

만 3세 유아의 기질 및 언어발달과 어머니의 자녀가치가 유아의 긍정적·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임현주¹⁾ 최선녀²⁾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기질, 언어발달과 어머니의 자녀가치가 긍정적·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 아동패널 4차년도(2011)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36개월 이상의 유아와 어머니 1,718쌍이다. 수집된 자료는 구조모형으로 통계처리하였는데 모델의 적합도는 우수하였다.

연구결과, 기질은 긍정적·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이었다. 활동성과 사회성의 기질은 긍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는 강한 정적 영향력을, 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는 강한 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유아의 언어발달, 어머니의 자녀가치, 취업상황도 긍정적·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긍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는 긍정적 영향력을, 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는 약한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주제어: 유아의 기질, 언어발달, 자녀가치, 또래와의 상호작용

I. 서론

영아기의 발달에서 부모 변인이 갖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유아기에도 부모 변인은 여전히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있어서 부모 외 새로운 대상이 등장하게 된다. 이들은 바로 또래집단이다. 유아는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모방과 강화의 모습을 보이며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정옥분, 2002).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상하관계가 아니고 나이대가 비슷한 또래집단 놀이에서

1)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겸임교수

이루어지는 관계형성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최혜영·신혜영, 2011). 이렇듯, 유아기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과 관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여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얻는 경험을 통해 유아는 사회성이 발달하게 된다(Fogle & Mendez, 2006). 또한, 또래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사회에서 개인의 역할을 알게 되는 등 사회적 기술도 익히게 된다(Hartup & Moor, 1990, 윤현숙, 2007에서 재인용). Howes와 Leslie(1998)는 유아기에 또래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게 되면 학령기 학교생활에서도 학업능력이 우수하다고 했다. 이렇듯 또래와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은 성장 후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초가 되고(정계숙·고은경·윤갑정, 2009), 인지적·사회적 기술의 발달에 필요한 맥락이 되어 사회적 유능성을 발달에 유리하다(마송희, 1992). 여러 연구에서 사회·정서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가지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늘 바람직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 또래와의 다툼과 분쟁으로 놀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Fantuzzo 외(1998)는 또래와의 놀이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긍정적·부정적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였다. 긍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놀이 상호작용’으로, 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놀이방해’와 ‘놀이단절’로 분류하였다.

신은수·권미경·정현빈(2010)은 또래와 놀이를 할 때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면 대인간의 관계가 우수하여 또래관계 형성에 무리가 없으며 친사회적 관계 형성이 용이하다고 했다. 또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되면 친구관계에서도 유능하고 인기가 있어 사회성 발달에도 유리하다고 했다(Oades-Sese, Esquivel, Kaliski, & Maniatis, 2011). 이에 비해, 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또래관계에서 공격적 행동이나 위축적 회피경향을 보이거나 자기 통제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게 하는 변인이다(Fantuzzo, Sutton-Smith, Coolahan, Manz, Canning, & Debnam, 1998). 김수영(2000)은 부정적 상호작용이 활발하면 자아통제감이 낮고 사회적 적응이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인이 효과적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 적응의 기초가 되는 또래집단으로의 수용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 상호작용의 감소에 도움이 되는 변인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기질에 따라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수줍음을 타서 쉽게 사귀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한다. 안라리·김희진(2008)도 인

간 생의 초기부터 개별적 차이를 나타내는 기질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침을 밝힌바 있다. 유아의 언어발달도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제 발생 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며, 자신의 생각을 소유한 어휘력을 총동원하여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엄은나(2007)는 우호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또래와의 협력을 이끌어 관계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언어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하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자녀에게 투영되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유아의 개인변인(기질, 언어발달)과 어머니의 자녀가치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변인이 또래와의 긍정적·부정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의 기질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생물학적 개인차로 정의된다(Goldsmith & Rothbart, 1996). 개인적 행동양식과 정서적 반응의 차이라고도 한다(Santrock, 2003). 기질은 일반적으로 변화가 쉽지 않아 시간의 경과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특징을 지니며(Bates, 1989; 장유진·이강이, 2011에서 재인용), 인간의 전 생애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Thompson, 2006).

본 연구에서의 기질은 Buss와 Plomin(1984)의 분류에 따른 활동성, 사회성에 대해 알아보려한다. 우선 활동성의 기질과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관계성을 밝힌 연구는 다음과 같다. 조은옥·최영희(2003)는 활동성의 기질과 유아의 또래 간 놀이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상관관계를 밝혔다. 그러나, 이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안라리·김희진(2008)은 활동성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최용주(2007)와 황윤세(2007)는 신체적인 움직임이 덜 활발한 경우 즉, 활동성이 낮으면서 자기조절력이 높은 경우 긍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다고 하였다. 이렇듯 유아의 기질 중 활동성과 또래와의 상호작용과의 관계성에 관한 서로 다른 연구가 존재하여 이에 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사회성의 기질과 유아의 또래관계를 연구한 조은옥·최영희(2003)는 사회성은 유아의 또래관계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닌다고 하였으며, 김민정과 엄정애(2005)도 사회성의 기질이 낮으면 유아는 혼자놀이를 즐기는 등 또래와 함께 하는 것을 어려워했다고 밝혔다. 즉, 여러 연구를 통해 유아의 기질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갖는 의미가 나타난 바 본 연구에서는 이를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 유아의 기질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려한다.

유아가 또래와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갈등과 문제상황 발생시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게 된다(Kruger & Tommasello, 1986; 김기예·이소은, 2007에서 재인용). 이러한 과정에서 언어적 수용과 표현을 하게 된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게 되고, 친구의 의견을 들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된다. 유아의 수용언어와 표현 언어 발달이 유능하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권혜진(2005)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언어의 사회화 기능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언어발달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협력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했다.

정계숙·고은경·윤갑정(2009)은 언어발달이 지체되면 또래와의 관계 형성시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혀 유아의 언어발달과 또래와의 관계 형성의 밀접한 관계를 밝히기도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Guralnick(1992)의 연구에서도 언어발달이 긍정적이지 않으면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긍정적 상호작용에서도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렇듯 여러 연구를 통해 언어발달과 상호작용과의 관계성을 알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을 세분화하여 언어발달이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려 한다.

‘자녀가치’는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를 말한다(유안진·김연진, 1997).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가 반영되는 개인의 믿음으로 유아의 행동과 발달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해당된다(Arnold, Bulatao, & Fawcett, 1975; 최효식·연은모·권수진·홍운정, 2014에서 재인용).

어머니의 자녀가치에 따라서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데 자녀에 대한 가치를 낮게 여기는 경우 자녀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인지한다고 했다(Conger, McCarty, Yang, Lahey, & Kropp, 1984). 이와 달리 자녀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어머니는 자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한다(박영신·김의철, 2009). 김선숙(2007)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에 대한 이러한 가치관은 자녀의 정서특성과 사회성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양육특성이 자녀가 또래와 관계를 형성할 때 긍정적 강화의 역할을 함을 시사하였다. Lugo-Gil와 Tamis-LeMonda(2008)도 양육자가 자녀에 대해 높은 자녀가치를 지니고 있으면 양육에서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지원적 역할을 하는 변인이라 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보경(2000)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태도에 따라 자녀가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친사회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어머니의 자녀가치가 유아의 사회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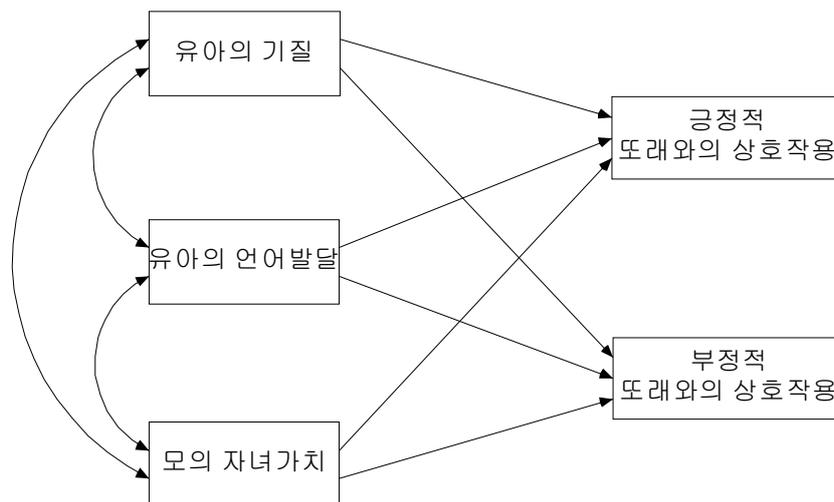
됨을 알 수 있다.

어머니 변인 중 어머니의 취업상황과 자녀의 또래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부족하다. 온정성과 반응성의 양육방식에 있어서 취업모와 전업모의 차이를 밝힌 임현주(2013)는 전업모가 반응적 양육방식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고 밝히었으며, 김은경·도현심·김민경·박보경(2007)은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어머니의 취업상황과 유아의 또래관계의 영향력을 유추할 수 있다.

권혜진(2005), 김선숙(2007), 조은옥·최영희(2003), 최용주(2007)와 황윤세(2007)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유아의 기질’, ‘유아의 언어발달’, ‘어머니의 자녀가치’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변인 간 나타나는 경로를 기반으로 가설모델과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유아의 개인변인인 기질과 언어발달, 인적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자녀가치가 긍정적·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이들 변인이 지니는 유용성과 시사점을 알아내고 이러한 과정이 유아의 긍정적 사회성 발달을 위한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유아의 기질, 언어발달과 어머니의 자녀가치가 긍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기질, 언어발달과 어머니의 자녀가치가 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그림 1] 긍정적·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설모델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데이터는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 패널을 기반으로 매년 횡단·종단 자료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육아정책 연구소(KICCE)의 한국아동패널(PSKC) 4차년도(2011) 자료를 활용하였다. 4차 년도는 2014년에 공개되었는데 총 1,754가구의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연구대상 1,754명은 35~42개월의 월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만 3세아 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35개월 미만아 36명을 케이스 제거 후 월령이 36개월 이상인 1,718명의 유아와 어머니를 데이터 선택하였다. 연구대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대상	항목	분류	N	%
유아	성별	남	885	51.5
		여	833	48.5
	월령	36개월	173	10.1
		37개월	321	18.7
		38개월	478	27.8
		39개월	403	23.5
		40개월	216	12.6
	41~42개월	127	7.4	
어머니	연령	25세 이하	24	1.4
		26~30세 이하	264	15.4
		31~35세 이하	888	51.7
		36세 이상	535	31.1
		결측값	7	0.4
	학력	고졸이하	519	30.3
		2,3년제 전문대졸	449	26.1
		4년제 대졸	659	38.2
		대학원 졸(석사, 박사)	85	4.9
		결측값	8	0.5
	취업상황	취업중	681	39.6
		학업중	9	0.5
		전업모	1,015	59.1
		결측값	15	0.8

2. 연구도구

가.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 검사도구는 Buss와 Plomin이 1984년에 개발한 EAS(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을 사용하였다. EAS은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문항이 부정적 진술로 구성되어 부정적 정서성을 나타내고 있는 정서성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는 활동성과 사회성만을 사용하였다. 활동성은 ‘우리 아이는 매우 활동적이다.’ 등의 정적 활동성을 알 수 있는 문항과 ‘우리 아이는 활동적인 놀이보다는 조용하고 정적이 놀이를 더 좋아한다.’ 등의 부정적 진술 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성의 기질을 알아보는 질문은 ‘우리 아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등의 긍정적 진술문항과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외톨이인 편이다.’ 등의 부정적 진술문항 등 총 10개 문항을 구성되어 있다. 활동성과 사회성 문항 중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은 역코딩 변수 변환하였다. 이에 활동성의 점수가 높으면 움직이기를 좋아하고 활동성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사회성 기질의 문항 점수가 높으면 타인과의 교류를 즐기며 잘 친하고자 하는 기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체크하는 5점 리커트형이며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평정한다. 활동성의 신뢰도 Cronbach’s $\alpha=.780$, 사회성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31$ 이었다.

나. 언어발달

언어발달은 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이 2009년에 제작한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도구(REVT;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다양한 검사도구중 가장 최근에 제작된 것으로 만 2세 6개월부터 16세 이상 연령의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을 측정하고 해석하며 정상성과 이탈성을 해석할 수 있는 검사도구이다. 원 도구에서 수용언어와 표현언어는 각각 185개 문항씩 총 370개 문항이며, 각 문항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에 대한 언어능력을 알아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각 질문에 정답은 1점으로 배점하며, 틀리면 0점으로 점수화한다. 검사자가 아이를 관찰하고 대화하면서 검사하게 된다. 검사의 각 문항에서 기초선과 최고한계선을 확정되면 최고한계선보다 높은 문항은 틀린 것으로 간주한다. 원점수는 최고한계선에서 틀린 문항의 수를 빼면 된다. 수용언어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89$,

표현언어의 신뢰도 Cronbach's $\alpha=.626$ 이었다.

다. 자녀가치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어떠한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삼식 등(200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원도구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아동패널에서는 5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자녀가치는 크게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로 나뉘어 있는데 정서적 가치의 질문내용은 '자녀를 키우는 것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 등의 4개 문항이며, 도구적 가치의 질문내용은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서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가치에 있어서 도구적·정서적 가치를 높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서적 자녀가치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20$, 도구적 자녀가치의 신뢰도 Cronbach's $\alpha=.747$ 이었다.

라. 또래와의 상호작용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Fantuzzo, Sutton-Smith, Coolahan, Manz, Canning과 Debnam이 1998년에 개발한 '또래 상호작용검사'(PIPPS;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를 사용하였다. 또래 상호작용 검사는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검사도구이다. 긍정적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놀이상호작용'은 친사회적 행동, 대인간 기술, 자기통제, 언어적 주장에 대해 담고 있어 '놀이상호작용'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상호작용을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부정적 상호작용에는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이 있다. '놀이방해'는 공격적 행동과 자기통제력 부족에 관한 질문을 담고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적이며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놀이단절'의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에서 위축되고 회피적인 성향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문문항을 살펴보면 놀이상호작용은 '친구들에게 싸우지 않고 반대 의견을 말한다' 등의 11개 문항, 놀이방해는 '친구들이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의 10개 문항, 놀이단절은 '놀이를 시작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등의 9개 문항,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거의 그렇지 않다'는 2점, '때때로 그렇다'는 3점, '항상 그렇다'는 5점으로 평정하는 5점 리커트형이다. 놀이 방해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84$, 놀이 단절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26$, 놀이 상호작용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23$ 이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아동패널은 층화다단계 표본 추출에 의한 표본 구축 후 복합표본 설계(complex sample design)에서 얻어진 자료를 데이터 분석 후, 모집단에서 발생하는 무응답 조정 및 사후 층화를 통한 가중치를 처리하였다. 즉, 모집단의 변동을 반영하였으며 패널의 탈락에 의한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횡단면 가중치 작업이 보정된 후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이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여 알아보았다. 유아의 기질, 언어발달, 어머니의 자녀가치, 긍정적·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 각 변인 간 존재하는 결측치는 '회귀 대체(regression-based imputation)'의 방법으로 선형 회귀 추세를 하였다. 유아의 기질, 언어발달, 어머니의 자녀가치, 긍정적·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또한, 유아의 기질, 언어발달, 어머니의 자녀가치, 긍정적·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 사이에 존재하는 영향력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SPSS 12.0과 Amos 7.0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III. 연구결과

1. 유아의 기질, 언어발달, 자녀가치,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초분석

가.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본 연구에서의 각 변인과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무응답 결측치 선형추세의 결과를 아래의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하위변인	M	SD	N		
				응답자수	무응답 결측치 수	회귀추정 후 N
기질	활동성	3.82	.59	1,661	57	1,718
	사회성	3.54	.54	1,659	59	1,718

(표 2 계속)

변인	하위변인	M	SD	N		
				응답자수	무응답 결측치 수	회귀추정 후 N
언어발달	수용언어(총점)	33.34	15.75	1,690	28	1,718
	표현언어(총점)	29.94	13.72	1,696	22	1,718
자녀가치	정서적 가치	4.33	.57	1,663	55	1,718
	도구적 가치	2.86	.77	1,661	57	1,718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	놀이상호작용	3.40	.45	1,620	98	1,718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놀이방해	2.31	.44	1,630	88	1,718
	놀이단절	1.98	.42	1,630	88	1,718

유아의 기질에서 활동성과 사회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3.82점($SD=.59$), 3.54점($SD=.54$)으로 활동성의 평균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언어발달에 있어서는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33.34점($SD=15.75$), 29.94점($SD=13.72$)으로 수용언어의 총점이 표현언어의 총점보다 약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자녀가치에서는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4.33점($SD=.57$), 2.86점($SD=.77$)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정서적 가치가 도구적 가치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래상호작용에 있어서는 놀이상호작용이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의 평균점수를 앞서고 있었다.

나. 각 변인의 상관관계

유아의 기질, 언어발달, 어머니의 자녀가치, 긍정적·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 간 경로분석에 앞서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아래의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 상관관계

구분		기질		언어발달		자녀가치		긍정또래	부정또래
		활동성	사회성	수용언어	표현언어	정서적	도구적	놀이 상호작용	놀이 방해
기질	활동성	1							
	사회성	.517**	1						
언어발달	수용언어	-.040	.026	1					
	표현언어	-.041	.023	.513**	1				
자녀가치	정서적	.141**	.183**	.041	.067**	1			
	도구적	.008	.065**	-.001	.012	.372**	1		

(표 3 계속)

구분		기질		언어발달		자녀가치		긍정또래	부정또래	
		활동성	사회성	수용언어	표현언어	정서적	도구적	놀이 상호작용	놀이 방해	놀이 단절
긍정 또래	놀이상호 작용	.239**	.363**	.088**	.146**	.234**	.118**	1		
부정 또래	놀이방해	.023	-.025	-.049*	-.085**	-.129**	.062**	-.162**	1	
	놀이단절	-.280**	-.414**	-.029	-.064**	-.246**	.011	-.380**	.527**	1

* $p < .05$, ** $p < .01$

유아의 기질, 언어발달, 어머니의 자녀가치와 긍정적·부정적 또래상호작용 간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기질(활동성, 사회성), 언어발달(수용언어, 표현언어), 어머니의 자녀가치(정서적, 도구적)는 긍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인 ‘놀이 상호작용’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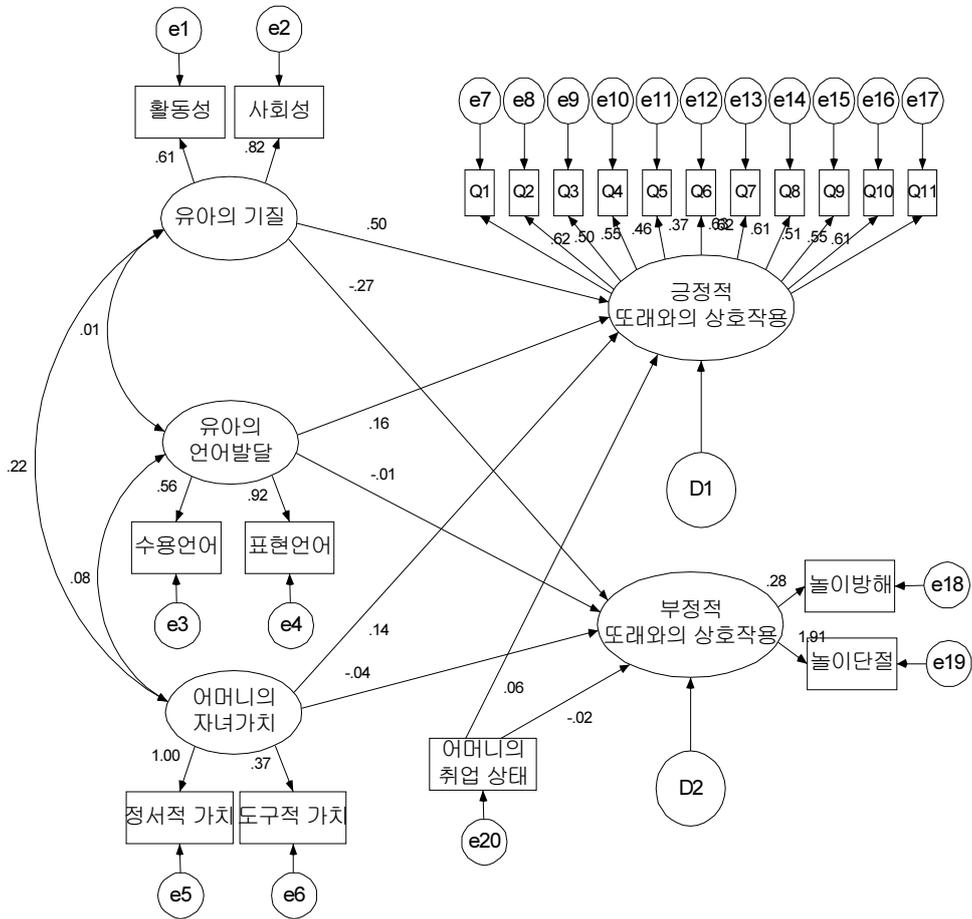
유아의 기질, 언어발달, 어머니의 자녀가치와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 단절’의 관계성은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인 ‘놀이 상호작용’과 달리 나타났다. 언어발달(수용언어, 표현언어), 어머니의 자녀가치(정서적)는 ‘놀이 방해’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었으나, 어머니의 자녀가치(도구적)는 ‘놀이 방해’와 정적 상관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기질(활동성, 사회성), 언어발달(표현언어), 어머니의 자녀가치(정서적)는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인 ‘놀이단절’과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2. 유아의 기질, 언어발달과 어머니의 자녀가치가 긍정적·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구조모델 분석)

가. 구조모델의 적합성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유아의 기질, 언어발달과 어머니의 자녀가치가 긍정적·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구조모델을 아래의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 만 3세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최종모델

구조모델의 적합도 검증결과를 아래의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 구조모델의 적합도 검증 결과

적합도지수	χ^2	df	NFI	IFI	TLI	CFI	RMSEA
최종모델	859.907	160	.886	.905	.875	.905	.050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구조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NFI=.886, IFI=.905, TLI=.875, CFI=.905, RMSEA=.050이었다. 구조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절대적합지수에 해당하는 χ^2 , RMSEA와, 증분적합지수에 해당하는 NFI, IFI, TLI, CFI를 살펴보면 된다(배병렬, 2011). NFI, IFI, TLI, CFI값은 .90이상, RMSEA 값은 .080이하 일 때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모델은 값은 비교적 양호하여 연구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나. 구조모델 분석

유아의 기질, 언어발달과 어머니의 자녀가치가 긍정적·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최종모델의 회귀계수(regression weights)를 구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표준화 회귀계수 값은 Estimate에 나타내었다. Cohen(1988)은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절대값이 .10보다 작으면 효과의 크기가 ‘작다’, .30정도의 크기이면 효과가 ‘보통 정도’, .50이상이면 효과가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모델의 유의성을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은 C.R.=1.965이상 이어야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방정식 특성상 모델의 전체적인 적합도 검증결과가 우수하다면 다른 경로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Kline, 2005, 2010).

<표 5> 구조모델 경로계수

변인 1	변인 2	Estimate	S.E.	C.R.	P
유아의 기질	→	.587	.044	13.233	***
유아의 언어발달	→	.005	.001	3.788	***
어머니 자녀가치	→	.210	.040	5.305	***
어머니 취업상황	→	.097	.060	1.598	.110
유아의 기질	→	-.091	.032	-2.860	**
유아의 언어발달	→	.000	.000	-1.133	.257
어머니 자녀가치	→	-.018	.008	-2.344	*
어머니 취업상황	→	-.009	.008	-1.176	.239
기질	→	1.000			
	→	1.223	.063	19.313	***
언어발달	→	1.000			
	→	.694	.150	4.587	***
어머니의 자녀가치	→	1.000			
	→	1.988	.401	4.899	***

(표 5 계속)

변인 1		변인 2	Estimate	S.E.	C.R.	P
	→	긍정적 상호작용 1	1.000			
	→	긍정적 상호작용 2	.859	.050	17.116	***
	→	긍정적 상호작용 3	.994	.053	18.736	***
	→	긍정적 상호작용 4	.855	.054	15.889	***
또래와의	→	긍정적 상호작용 5	.801	.061	13.177	***
긍정적 상호작용	→	긍정적 상호작용 6	1.178	.057	20.822	***
	→	긍정적 상호작용 7	1.207	.059	20.562	***
	→	긍정적 상호작용 8	1.329	.066	20.213	***
	→	긍정적 상호작용 9	.830	.048	17.474	***
	→	긍정적 상호작용 10	.884	.047	18.724	***
	→	긍정적 상호작용 11	.983	.049	20.252	***
또래와의	→	놀이방해	1.000			
부정적 상호작용	→	놀이단절	7.919	3.326	2.381	*

* $p < .05$, ** $p < .01$, *** $p < .001$

유아의 기질, 언어발달과 어머니의 자녀가치가 긍정적·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직접효과(direct effect)를 구하여 <표 6>에 나타내었다.

<표 6> 각 변인간 직접효과(%)

변인 1		변인 2	직접효과
유아의 기질	→		50.1
유아의 언어발달	→	긍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	15.6
어머니 자녀가치	→		14.6
어머니 취업상황	→		6.0
유아의 기질	→		-27.2
유아의 언어발달	→	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	-1.4
어머니 자녀가치	→		-4.4
어머니 취업상황	→		-2.0

유아의 기질이 긍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50.1%였으며, 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27.2%를 차지하여 유아의 기질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매우 강력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긍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는 매우 강한 정적 영향력을, 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도 강한 부적 영향력을 비치고 있었다.

유아의 언어발달이 긍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15.6%였으며, 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1.4%를 나타내어 유아의 언어발달은 긍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강한 영향력을, 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는 약한 부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자녀가치가 긍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14.6%였으며, 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4.4%를 나타내어 어머니의 자녀가치는 긍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강한 정적 영향력을, 부정적 상호작용에는 약한 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취업상황은 긍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6.0%였으며, 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2.0%를 나타내고 있었다.

즉,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변인은 기질이었는데 기질은 긍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는 강한 정적 영향력을, 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도 강한 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유아의 언어발달과 어머니의 자녀가치도 긍정적·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영향력은 기질보다는 작았지만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유아의 언어발달과 어머니의 자녀가치, 취업상황은 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는 정적 영향력을, 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는 정적 영향력보다는 낮은 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 언어발달과 어머니의 자녀가치가 긍정적·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기질 중 활동성과 사회성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조희원·박성연·지연경(2011)은 생물학적 요인에 따른 개인의 특성인 기질(Goldsmith, & Rothbart, 1996)과 유아의 사회적 행동특성의 밀접한 관계성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유아의 활동성과 사회성의 기질은 긍정적 상호작용에는 매우 강한 정적 효과를 주고 있었으며, 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도 강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질의 하위변인인 활동성과 사회성은 긍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는 변인임이 밝혀졌다. 임은정·김수영(2011)도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적응성과 활동성의 기질 변인이 사회적 능력과 정서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서 적응성과 활동성의 기질 변인이 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경로를 보이며 각각 37.6%, 31.2%의 강한 정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여 본 연구과 맥을 같이 하였다. 즉, 유아의 활동성은 다른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는 자극의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활동성과 사회성의 기질은 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인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활동성과 사회성의 기질적 특징은 긍정적 또래와 상호작용에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놀이단절과 놀이방해의 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감소시키는 역할로도 전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유아의 언어발달은 긍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강한 영향력을, 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는 미미한 부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송요현(2012)은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의 발달과 긍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언어발달과 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부적 관계임을 밝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의견이 대립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의견을 조리있게 말하고 친구와 생각을 나누고 갈등을 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언어발달은 유용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Laws, Bates, Feuerstein, Mason-Apps와 White(2012)는 이러한 언어능력이 부족하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적절한 형태로 관계가 형성되기 쉽다고 밝히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또래와의 관계에서 문제 발생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말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발달이 긍정적 또래관계 형성에 정적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용언어에는 ‘듣기’와 ‘읽기’, 표현언어에는 ‘말하기’와 ‘쓰기’가 있지만 유아기임을 감안하면, 만 3세아가 가능한 언어는 ‘듣기’와 ‘말하기’일 것이다. ‘듣기’와 ‘말하기’를 통해 유아는 긍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갈등의 상황에서도 언어능력을 이용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어 부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감소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Vygotsky(1978, 2009)는 유아의 사고과정과 언어능력을 매우 밀접하게 보았다. 이에 대해 언어가 개인적인 동시에 심오한 사회적 과정임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언어의 사용을 개인과 사회 사이의 변증법적 과정이라 하며, 아동발달에서의 표현언어인 ‘말하기’를 강조하였다. 아동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기호의 사용인 ‘말하기’를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고 또래와의 관계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유아가 행하는

‘말하기’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은 사회화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와 여러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언어발달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어머니의 자녀가치는 긍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정적 영향력을, 부정적 상호작용에는 약한 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어머니가 자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과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녀가 주는 심리적 안정을 중요시하는 정서적 자녀가치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의미롭게 여기는 도구적 자녀가치를 가지는 어머니의 태도가 자녀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다. Foster(2000)는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갖는 신념이나 가치관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해당하는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있다고 했다. Halberstadt, Thomson, Parker와 Dunsmore(2008)는 이러한 자녀에 대한 가치에 따라 자녀의 발달도 상이한 결과를 보임을 밝힌 바 있다. 김현옥(2013)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가 조절 변수의 역할을 하여 사회성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상황은 유아의 긍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에는 정적 영향력을, 부정적 상호작용에는 약한 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어머니와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취업모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전업모가 자녀의 또래 상호작용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임현주(2013)도 전업모가 취업모보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반응적 태도를 더 보이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반응적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육아지원 정책을 펴나감에 있어 어머니의 취업상황에 따라 그 육아지원정책 방향을 달리 적용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유아의 개인변인과 인적 환경변인인 어머니의 자녀가치가 유아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혀 이들 활동성과 사회성의 기질, 유아의 언어발달, 어머니의 긍정적 자녀가치의 변인들이 주는 시사점을 밝힌 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력을 나타내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낮은 상관계수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은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제한점에 해당됨을 밝히는 바이다.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유아의 발달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로의 영향력에 관한 여러 연구(권미경, 2010; 이지희, 2008; Shaw, Owens, Giovannelli, & Winslow, 2001)에서 그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모델이 지니는 유용성에 관한 연구가 이

루어지길 희망한다.

또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문제행동으로 발전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가 있어 긍정적·부정적 또래상호작용과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김희태·김정림·이임순·남연정(2014)의 연구에서 활동성이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을 설명하면서 활동성과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경우 상호작용에 있어 부적절한 방법의 발생이 높다고 하였다. 이에 유아의 기질을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각각 군집분석하여 집단을 구분한 후 이들 집단 간 나타나는 또래와의 상호작용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라 여겨 이를 후속연구로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서주현·김진경(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73, 101-121.
- 권미경(2010).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영향요인: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463-483.
- 권혜진(2005). 또래 쌍 구성과 과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상호작용과 문제해결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기보경(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에·이소은(2007).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능력에 따른 유아의 실행기능과 또래상호작용.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1), 167-197.
- 김민정·엄정애(2005). 유아의 혼자 놀이와 기질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1-14.
- 김선숙(2007).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2, 65-95.
- 김수영(2000). 유아의 또래 수용도, 놀이상호작용 및 놀이형태와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0(3), 47-66.
- 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도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은경·도현심·김민정·박보경(2007).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 남녀 아동의

-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3), 115-131.
- 김현옥(2013). 어머니의 우울이 영아의 심리·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양육요인의 조절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83, 1-21.
- 김희태·김정림·이임순·남연정(2014). 유아의 부정적인 또래상호작용 행동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분석. **유아교육연구**, 34(2), 29-48.
- 마송희(1992). 아동의 사회적 수용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성연(2011). 한국 사회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의미와 변화. 2011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조강연, 1-22.
- 박영신·김의철(2009). 한국 성인 남녀가 행복에 이르는 길: 직업성취, 자녀 성공,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567-495.
- 배병렬(2011). Amos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도서출판 청어람.
- 송요현(2012). 만 3세 유아의 어휘력 발달을 예측하는 변인탐색: 유아의 개인특성, 평일 일과활동 및 일상생활시간 변인을 중심으로. 2012 아동패널 연구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신은수·권미경·정현빈(2010). 유아의 사회적 기술,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놀이행동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83-209.
- 안라리·김희진 (2008). 유아의 개인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6(2), 1-12.
- 엄은나(2007).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안진·김연진 (1997). 부모교육. 서울: 동문사.
- 이삼식·정윤선·김희경·최은영·박세경·조남훈(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서울: 저출산 고령화사회 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7-15.
- 이지희(2008).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분석.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은정·김수영(2011). 유아의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력 및 관련 변인들과 사회적 능력 간의 구조 관계분석. **유아교육연구**, 31(4), 5-29.
- 임현주(2013).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양육방식의 차이 연구. **육아정책연구**, 7(2), 190-214.
- 장유진·이강이(2014). 영아의 정서성 기질과 어머니의 부정 정서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유아교육연구**, 34(3), 67-84.
- 정계숙·고은경·윤갑정(2009). 또래간 협의로 변형된 동화의 극화활동을 통한 언어발달 지체유아의 사회적 언어능력 증진. **정서·행동장애연구**, 25(1), 185-210.

- 정옥분(2002).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은옥·최영희(2003). 유아의 기질과 놀이행동에 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16(1), 57-67.
- 조희원·박성연·지연경(2011). 아동의 기질 및 주장적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2(6), 15-32.
- 최용주(2004).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 및 관련 변인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혜영·신혜영(2011).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또래 놀이행동 척도의 타당화. **아동학회지**, 32(2), 35-52.
- 최효식·연은모·권수진·홍윤정(2014).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 지식, 양육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분석. **육아정책연구**, 7(2), 21-45.
- 황윤세(2007). 유아의 기질, 자기조절력과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2(1), 145-166.
- Arnold, F., Bulatao, R. A., & Fawcett, J. T.(1975). *The value of children: A cross-national study(Vol. 1)*: East-West Population Inst.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ates, J. E.(1989). Concepts and measures of temperament. In G. Kohnstamm, J. Bates & M. Rothbart (Eds.), *Temperament in Childhood* (pp. 3-26). New York: Wiley.
- Buss, K. A., & Plomin, R.(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Cohen, J.(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New York: Academic Press.
- Conger, R. D., McCarty, J. A., Yang, R. K., Lahey, B. B., & Kropp, J. P.(1984). Perception of child, child-rearing values, and emotional distress as mediating links between environmental stressors and observed matern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6), 2234-2247.
- Fantuzzo, J., Sutton-Smith, B., Coolahan, K. C., Manz, P. H., Canning, S., & Debnam, D.(1998). Assessment of preschool play interaction behaviors in young low-income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1), 105-120.
- Fogle, L. M., & Mendez, J. L.(2006). Assessing the play beliefs of African American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1,

507-518.

- Foster, C.(2000). The limits to low fertility: A biosocial approach.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2), 209-234.
- Goldsmith, H. H., & Rothbart, M. K.(1996). *The laboratory temperament assessment battery*.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Department of Psychology.
- Guralnick, M.(1992). *A hierarchical model for understanding children's peer-related social competence*. In S. L. Odem., S. R. McConnell., & M. A. McEvoy (Eds.), *Social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Baltimore, MD: Paul H. Brookes.
- Halberstadt, A. G., Thomson, J. A., Parker, A. E. & Dunsmore, J. C. (2008). Parents' emotion related beliefs and behaviours in relation to children's coping with the 11 September 2001 terrorist attack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7, 557-580.
- Hartup, W. W. & M, S. G.(1990). Early peer relations: Developmental signification and prognostic implication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 1-7.
- Howes, C., & Leslie, P.(1998). Continuity in children's relations with peers. *Social Development*, 98, 340-349.
- Laws, G., Bates, G., Feuerstein, M., Mason-Apps, E., White, C.(2012). Peer acceptance of children with language and communication impairments in a mainstream primary school : Association with type of language difficulty, problem behaviours and a change in placement organization. *Child Language Teaching and Therapy*, 28(1), 73-86.
- Lugo-Gil, J., & Tamis-LeMonda, C. S.(2008). Family resources and parenting quality: Links to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across the first 3 years. *Child Development*, 79(4), 1065-1085
- Kline, R. B.(2010). *구조방정식모형 원리와 적용*(Principle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이현숙·김수진·전수현(공역). 서울: 학지사.(2002년 원저 발간).
- Kruger, A. C., & Tommasello, M.(1986). Trans active discussions with peers and adul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681-685.
- Oades-Sese, S. V., Esquivel, G. B., Kaliski, P. K., & Maniatis, L.(2011). A longitudinal study of the social and academic competence of economically disadvantaged bilingual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 Psychology*, 47(3), 747-764.
- Santrock, J. W.(2003). *Children* (7th ed.). New York: McGraw-Hill, Inc.

- Shaw, D. S., Owens, E. B., Giovannelli, J., & Winslow, E. B.(2001). Infant and toddler pathways leading to early externalizing behavio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 36-43.
- Thompson, R. A.(2006).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 Social understanding, relationships, conscience, self.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24-98). NJ: Wiley.
- Vygotsky, L. S.(2009). **마인드 인 소사이어티: 비고츠키의 인간 고등심리 과정의형성과 교육**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mental process). (정희욱 역). 서울: 학이시습 (1978년 원저 발간).

·논문접수 4월 29일 / 수정본 접수 5월 29일 / 게재 승인 6월 16일

·교신저자: 최선녀,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겸임교수, 이메일 sunny5100@hanmail.net

Abstract

The Effects of Child's Temperament, Child's Language Development and Mothers' Child Value on Positive and Negative Peer Interactions

HyunJu Lim and Seonnyeo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the child's temperament, the child's language development, and the mothers' child value on the child's positive or negative peer interacti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718 children aged more than 36 months and their mothers who participated in the 4th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b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statistically by the structural model and the fitness of the model was excelle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hild's temperament was the strongest variable to affect the child's positive or negative peer interaction. The temperament gave the strong positive influence on the positive peer interaction and the strong negative influence on the negative peer interaction. The child's language development and mothers' child value also gave impacts on the child's positive or negative peer interaction. The child's language development and mothers' child value gave the strong positive influence on the positive peer interaction and the strong negative influence on the negative peer interaction.

Key words: child's temperament, language development, child value, peer interactions